

국어 1등급 컷 93점...수학 가·나형 92점

광주 고교 수능 가채점 분석

'절대평가' 영어 8% 상회

사탐 5개 과목 50점 만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국어의 1등급 컷(트라인(등급컷))은 93점, 수학 가·나형은 92점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대입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치른 광주 고교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돼 1등급 컷이 93점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학 1등급 예상 컷은 가형·나형 모두 92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변별력은 갖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절대평가 전환 후 처음 실시된 영어 1등급 비율은 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평가하게 출제됐지만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는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9개 과목 중 5개 과목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과탐은 8개 모든 과목이 45~46점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단 등은 수학·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반면 국어·영어·사회

탐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갖춰진 수능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시 지원에선 영어 반영 방법을 고려해 전략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10%가 넘는 결시생 수도 실채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지원단 등의 설명이다.

전남대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49점 내외로 예상된다. 영어교육학과(270점)·국어교육학과(268점)·행정학과(267점)·경영학부(264점)·사학과(256점) 등이다.

자연계는 의예과(284점)·치의예과(279점)·수의예과(264점)·수학교육과(261

점)·간호학과(256점대) 등이다. 수학 가형을 지정한 학과의 경우 234점 내외에서, 수학기형과 나형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한 자연계 일부학과는 232점대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인문(194점대)·자연(180점대)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별로는 영어교육과(247점)·국어교육과(242점)·경찰행정학과(241점)·경영학부(211점)·의예과(280점)·치의예과(276점)·간호학과(248점) 선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교대 인문계열은 272점, 자연계열은 260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수학기형 응시자 기준 273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자료는 원점수를 바탕으로 한 가채점 결과"라며 "수험생들은 다음달 12일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표준점수나 백분위 점수 등에 따라 대학별 반영점수를 파악해서 정확한 지원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0일(오후 4시)과 다음달 19일(오후 4시)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수능 가채점(실채점) 결과분석과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겨울 담장에 핀 꽃 26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 산책로를 둘러싼 외벽에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이의신청 400건 육박

'생활과 윤리' 18번 9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25일 오후 2시 현재 397건이라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이의신청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탐구 64건, 국어 45건, 수학 기형 13건, 영어 9건, 수학 나형 8건 등이었다. 사탐 이의신청은 '생활과 윤리' 18번 문제에 쏠렸다. 해당 문제는 해외원조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로 평가원은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입장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3번 선택지라고 밝혔다.

'생활과 윤리' 18번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약 90건 접수돼 있다. 평가원은 2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달 4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시청 앞 집회에 광산구청 차량 동원?

주민 시위에 차량 빌려 줘

광산구 "모 의원이 동원 요청"

광주시, 증거 확보·상황 파악중

광주시청 앞 집회에 광산구 신흥동주민자치센터 차량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시청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과격 양상을 보이는 시청 앞 집회에 동원된 구청의 차량에 시위용품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주시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는 26일 "지난 10일 광주시청 앞

에서 진행된 집단지구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반대 집회에 광산구청의 차량이 동원된 정황과 사진 증거들을 확보해 자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트럭 1대가 시청 앞에 도착했고, 이 차에는 이날 시위에 사용된 의자 등 시위 용품이 실려 있었다. 이 트럭은 신흥동주민자치센터에서 폐기물 수거 등에 쓰는 광산구청 소유다.

이번 집회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 행동에 경찰 차량 4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광산구청은 집단지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 배치 계획 재검토를 광주시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광주시청에 항의하는 집회에 구청이 차량을 빌려준 셈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산구의 회 모 의원이 이날 오전 신흥동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차원의 차량 동원을 요청해 해당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지원한 것"이라며 "지침 광주시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광주시청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시청 3층 시정실 인근에서 한 시위자(여·60)가 화장실 오물을 시청 여 공무원에게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광주시청 앞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9 해질 17:21
달출몰 13:26 달몰 06:00

찬바람 생생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0/13	보성	맑음	-4/12
목포	맑음	2/10	순천	맑음	0/14
여수	맑음	4/14	영광	맑음	-3/10
나주	맑음	-3/12	진도	맑음	1/11
완도	맑음	3/12	진주	맑음	-1/10
구례	맑음	-5/14	군산	맑음	-2/9
강진	맑음	-1/13	남원	맑음	-4/13
해남	맑음	-2/12	속산도	맑음	5/9
장성	맑음	-3/11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면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남해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높음	낮음
자외선	높음	낮음
미세먼지	보통	보통

주간 날씨

날씨	28(화)	29(수)	30(목)	12/1(금)	2(토)	3(일)	4(월)
날씨	☁	☀	☀	☀	☀	☀	☀
기온	3/13	6/11	4/9	2/7	-2/9	-1/11	0/11

광주·전남 주말께 영하권 추위

전남 일부 30일 비

이번 주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는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오는 30일에는 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1~2mm 안팎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이날 비가 온 후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2월 1일 전남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일부터는 광주 최저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고 보성 영하 6도, 곡성 영하 5도, 나주·영광·보성·영암이 각각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진도, 완도, 여수를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주말인 3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졸음쉼터 출입로 짧아 사고 위험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출입로 길이가 짧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도 전국 235곳 중 17%(40곳)나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졸음쉼터 4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7.8%인 35곳은 진입로 길이,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 기준보다 짧았다"고 26일 밝혔다. 진입·진출로 구간이 짧으면 졸음쉼터

를 출입할 때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중 7곳(15.6%)은 진입·출입로 폭이 기준(3.25m)보다 좁아 주차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었다.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 방지턱은 31곳에, 주차 차량 보호시설은 18곳에, CCTV는 23곳에 각각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차장 측면에 있는 보행자 안전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아 보행이 시급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 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쁨!!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지원 및 예적금발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